

■ 지평 소식 ■

## 공익강연 '난민 - 더 나은 이야기' 개최

지평은 지난 9월 24일 난민법 전문가인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난민 - 더 나은 이야기'를 주제로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난민 지위 인정의 필요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필의 노력 등 난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4,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있고, 이중 절반이 여성과 아이라고 합니다. 이날 공익강연은 지평이 이들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 경복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

지평은 지난 8월 21일과 29일, 10월 28일과 29일에 경복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지평 구성원 37명이 참여하여,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경복궁 근정전부터 경회루까지 현장순찰 및 관람객 질서유지, 동선안내, 문화재보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활동

지평은 지난 9월 5일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빵을 경성교회, 능곡침례교회, 산마루교회, 의정부하늘샘교회, 서기대외국인유학생, 연희동, 남가좌동, 흥은동 이웃들 등 나눔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지평은 매월 1회 '제빵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 ■ 지평 소식 ■

## 2015 지평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 구성원 31명은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올해에는 더덕을 캐고 나르는 일을 도왔는데, 몸은 비록 고되었지만, 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우면서 마음을 넉넉히 채워갈 수 있었던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덕산면에는 마을 공동체 복원을 꿈꾸는 분들이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여 덕산포럼, 마을 어린이집, 누리마을 빵까페 등 다양한 농촌공동체 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마친 후에 농촌공동체연구소 한석주 소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평은 2012년부터 농촌봉사활동을 4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하는 겨레얼학교 탁구대회

지평은 지난 11월 7일 목동의 탁구클럽에서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하는 겨레얼학교 탁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겨레얼학교는 저소득층 탈북청소년들과 탈북 2세 아동들을 지원하며, 지평은 2011년 학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 제9회 여성인권영화제 후원

지평은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제9회 여성인권영화제의 후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인권영화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에 시작된 영화제입니다.

■ 지평 소식 ■

## 2015 지평 공익의 날, 두루 창립 기념행사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의 공익활동을 되짚어 보는 '지평-두루 뉴스'를 상영하고 '지평-두루 공익토크쇼'를 마련하여 공익의 의미와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사진]

